



## 국민앞에 바로 서는 총파업 깃발을!

연합뉴스 노동조합원이 23년 만에 파업의 깃발을 힘차게 들어올렸다.

‘박정찬 3년’간 과오를 국민께 사죄하고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바로 서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2일 오후 5시 센터 원빌딩 8층 회의실에서 모여 비상 총회를 열고 파업을 한 목소리로 결의했다.

파업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1989년 편집국장 복수추전제 등을 놓고 파업한 이래 23년만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연합뉴스는 박정찬 사장 취임 이후 근로여건 악화, 불공정 보도, 사내 민주주의 퇴보, 인사 전횡 등을 겪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

에 연임저지 투쟁에 나섰다”며 파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는 최근 몇년 동안 주요 사안의 보도에서 정권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우리는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언론사로 돌려놓기 위해 조합원 총의를 모아 총파업을 결의한다”고 투쟁 의지를 선언했다.

이날 비상총회에 재적 조합원 503명 중 특파원과 휴가자 31명을 제외하고 284명이 모여 60%가 넘는 참석율을 기록했다.



총회는 공병설 노조위원장의 총회 안전과 투쟁 경과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류지복 조합원이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파업 절차와 요건, 파업 이전 가능한 투쟁의 종류 등을 발제했다.

오후 10시까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연가투쟁에서 모인 동력을 유지하면서 투쟁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오전에 부별 회합을 가졌던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등은 자체 모임에서

합의됐거나 논의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몇몇 조합원이 총회 전 사장이 게시판으로 제안한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사장의 대화 제의는 ‘대화파’와 ‘주전파’로 노조가 분열되길 노리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사장과의 대화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박 사장이 이날 오후 9시께 예정없이 총회장을 찾으며 대화 논란은 가라앉았다.

박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내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차기 사장직에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혀 조합원들에게 “지금 나가야 한다”는 원성을 샀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에 앞서 오후 2시 본사 앞 한빛 광장에서 뉴스통신진흥회의 박 사장 연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연임 결정으로 우리의 투쟁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며 “박 사장 연임 저지와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위한 우리의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갈 것이고 방식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빠짐없이 참여해 우리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자.



### <조합원 비상총회 이모저모>

◇ **가슴 뭉클한 사과** = 노조위원장을 지낸 옥철 조합원의 사과는 선후배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 2009년 박 사장 취임 당시 자질 문제가 있었음에도 저지 투쟁을 하지 못해 사태가 결국 이 지경에 왔다는 절절한 반성이었다. ‘낙하산이나. 낙하산이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실기(失期)한 탓에 외부 인사보다 더 지독한 낙하산을 보게 됐다’는 것.

옥철 조합원은 “공 위원장이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두 번이나 허리를 숙였고, 이를 지켜보던 선후배들도 고개를 떨구면서 뭉클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겁니다”** = 총회를 찾은 박 사장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다. 박 사장은 내내 ‘대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단 두 마디로 ‘대화파’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물러나십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박수칠 때 떠나십시오”라는 조합원들의 사퇴 촉구엔 “그렇다면 오늘같은 자리가 없었겠죠” “정말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겁니다”라고 응수했다.

최근 결혼한 한 조합원은 사장에게 “축의금 돌려드리겠다”고 했다가 “그건 사장 개인돈이 아니라 회사돈”이라는 주위의 빈축을 사기도.

◇ **284인분 배달 기록** = 조합원 284명이 참석한 사상 최대의 총회가 저녁 5시부터 열리면서 저녁 식사를 위한 ‘보급투쟁’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기존에 김밥 일변도의 메뉴가 김밥, 샌드위치, 주먹밥으로 다양해졌다.

집행부의 이런 배려는 조합원들이 김밥 반, 샌드위치 반을 서로 나눠먹으며 우애까지 돈독해지는 효과까지 낳았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투쟁 전략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연합통신 전면파업 돌입”

총파업 투표를 시작한다고 하니 혹자는 말한다. “연합뉴스는 파업해 본 적이 없어서... 될까?”

맞는 말이다.

연합뉴스는 파업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연합통신은 23년전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의 역사가 엄연히 기록돼있다.

“편집국장 복수추천제를 둘러싸고 연합통신 노조(위원장 김태웅)는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8시까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한겨레 1989.10.11자>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연합 선배들도 지난주 우리처럼 초기엔 휴가를 이용해 파업의 수위를 높여 갔다는 것.

“연합통신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정시 출퇴근 준법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7일엔 노조원 386명중 203명이 집단 월차휴가를 내고 북한산 등반대회를 했다” <위 신문>

파업 찬반 투표의 결과는 어땠을까.

“연합통신 노조는 12일 오후 8시 비상총회를 열고 재적 조합원 367명중 3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230표(67.2%)를 얻음으로써 파업을 결의했다” <위 신문 1989.10.13일자>

한겨레 신문은 연합뉴스가 파업하면서 이튿날부

터 중앙 18개, 지방 27개 신문과 3개 방송사에 대한 기사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사측(사장 조용중)의 대응은 어땠을까.

“회사 측은 14일 각 실국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서울 본사의 부장급 10여명 등 모두 50여명으로 기사 작성 및 송고 등을 담당하게 했다” <위 신문 1989.10.15일자>

사측은 여전히 편집국장 복수추천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 임금도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연합통신 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150여명이 파업 이틀째 수송동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일보를 거쳐 문공부 앞까지 거리 시위도 했다.

당시 구호는 ‘단체협약 재취하여 민주통신 이룩하자’.

민주통신.. 가슴이 아리다.

노조로 승기가 기운 것은 파업 옛새재인 1989년 10월18일 차장급 노조원 37명이 모임을 하고 ‘만장일치’로 파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5시부터 파업에 동참하면서다.

한겨레는 10월23일치 신문에 “노조는 회사에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런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회사가 거부하자 회사쪽의 협상자세에 의문을 가진 차장급 37명이 동참했다”고 해설했다.

당시 파업 방법이 눈길을 끈다.

노조는 21일 오전 회사 정문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했고 오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이 일하는 전무국과 업무국 직원의 퇴장을 요구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근무하는 직원의 출근을 회사 정문에서 막기도 했다.

물리력까지 동원한 상당히 ‘췌’ 수위의 파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회사는 논설위원, 기획위원까지 외신업무에 투입하는 비상대책으로 맞섰고 국내 뉴스는 수습기자 9명까지 동원했다고 기록돼 있다. 지방기사는 지국장이 직접 작성해 송고했다.

결국 연합통신 노조는 파업 19일만인 10월31일 투표로 파업을 끝낸다.

편집국장 복수추천제는 “기자들의 총의를 ‘투표행위를 피해’ 최대한 반영한다”에 합의했다. 노조는 부분적인 투표는 가능한 것으로, 사측은 일체의 투표행위를 안한다고 해석해 불씨를 남겼다.

노조가 전면 투표에서 양보한 대신 사측은 19일치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연합통신 선배들이 파업했던 1989년 10월엔 연합 말고도 MBC, 서울신문이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1989년 10월18일치 한겨레 신문 사설(제목:연합통신의 파업과 권력의 입김)은 이렇게 기록한다.

“이들의 요구는 공정보도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미 많은 언론기관에서 채택하는 것이다”

이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런데도 연합통신 경영진은 ‘인사권 침해다’라는 주장만 고집하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헉! 이때도 필땅님이..)

“사실 경영진이 내세우는 인사권 침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MBC, 서울신문, 연합통신이 안고 있던 ‘여권매체’라는 오명은 친정 부적인 경영진이 편집책임자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던 데서 비롯됐다”

“경영진이 인사권을 내세워 노조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배후에서 정부의 조종이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선배의 전언에 따르면 이때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의 핵심인사가 바로 박정찬 사장이라고 한다.

어떠신가.

역사는 과연 진보하기나 하는 것일까.

동지여!

역사는 돌고 돌아 이제 연합의 새 역사를 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 ‘연합통신’의 파업과 권력의 입김

예정된 것처럼 <문화방송(MBC)>과 <서울신문>에 이어 <연합통신> 역시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MBC나 <서울신문>과 마찬가지로 <연합통신>의 파업 또한 경영진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태도로 시종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연합통신>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 노조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편집국장 복수추천제와 지방·국제·출판국장 임명동의제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제도는 공정보도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미 많은 언론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언론기관에 비해 도입이 늦은 감이 있는데도 <연합통신> 경영진은 “투표행위는 절대 안된다” “인사권 침해다”라는 주장만 고집하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간간부인 차장들이 모여 ‘투표절차 없는 편집국장 복수추천제’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경영진은 이것마저 거부했다. 모든 대화가 그렇듯이 노사간의 대화도 성공할 수 있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연합통신> 경영진은 두달만 동안에 걸친 18차례의 협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채 옹고집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경영진이 파업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하는 것이다.

사실 경영진이 내세우는 인사권 침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MBC나 <서울신문> <연합통신>이 안고 있던 ‘여권매체’라는 오명은 친정부적인 경영진이 편집·편성 책임자에 대한 독단적 인사권을 갖고 있던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추천제나 임명동의제 등은 권력이 더이상 편집권을 유린하는 것을 막는 데 참뜻이 있는 것이다.

경영진이 이처럼 설득력있고 현실적인 논리를 무시하고 인사권을 내세워 노조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배후에서 정부의 조종이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병렬 문공부장관이 <서울신문> 파업에 공개적으로 개입했던 것도 정부의 의도를 여실히 반영한다. 이 때문에 MBC는 추천제 원칙에 합의하고도 시행세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신문>도 ‘무노동 무임금’ 문제로 사태가 악화되어 있다. 언론노조 운동을 궁지에 몰아 민주화 자체를 저해하려는 정부의 공작은 지금도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 연합통신 전면파업 돌입

###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최종협상 깨져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등을 놓고 사측과 노조 간 협상을 벌여 온 <연합통신> 노조(위원장 김태웅)는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에 앞서 12일 오후 8시 회사 1층 로비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재적 조합원 3백67명중 1백42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백30표, 반대 1백12표로 67.2%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측은 이어 이날 밤 11시부터 2시간10분간을 걸쳐 회사측과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고수,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통신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13일부터 중앙 18개, 지방 27개 신문 및 3개 방송사에 대한 기사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됐다.

### 연합통신 차장급 파업 동참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등을 둘러싸고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연합통신> 사태는 파업 6일째인 18일 오후 지금까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차장급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차장급 노조원 37명은 이날 오후 2시에 편집국에서 모임을 갖고 만장일치로 파업에 참여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5시부터 파업에 동참했다.

### 연합통신 파업찬반투표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등을 둘러싸고 지난달 29일 쟁의발생사고를 한 연합통신 노조(위원장 김태웅)는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8시까지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찬반투표에는 주재기자들을 포함한 90여명의 지방 지국조합원들도 서울 본사에서 직접투표하게 된다.

연합통신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정시 출·퇴근준법투쟁을 계속벌이고 있으며 7일에는 노조원 3백86명중 2백3명이 집단 월차휴가원을 내고 북한산 등반대회를 갖기도 했다.

노조는 9일 회사측과 16차 단 계교섭을 벌였으나 회사측이 “투표를 통한 복수추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방침을 고수해 결렬됐다.

### 파업 10일째 접어든 연합통신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등을 둘러싸고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연합통신> 사태는 22일째로 파업 10일째를 맞고 있으며, 회사측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입장을 고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위원장 김태웅)는 지난 17일 회사측과의 협상에서 조합원들이 차장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기획위원들을 외신업무에 투입, 부장급 이상 및 촉탁사원들과 함께 외신기사를 작성해 하고 있으며 국내뉴스는 부장급 이상 간부와 일부 차장, 수습기자 9명을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지방뉴스는 각 지국의 지국장들이 직접 송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20일 편집국장 이광호로 각 언론사에 보낸 사과에서 “노조파업 사태로 고객사에 대한 뉴스서비스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 회사 “조합원 뜻 묻는 ‘인사방식’ 절대불가”

### 노조 정문출근 저지투쟁 등 적극대응 모색

“편집국장 임명 때 ‘전면적인 투표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2개 대안을 제시했으나 회사측은 “부분적인 투표행위를 포함해 조합원 개인의 의사를 묻는 방식을 통한 의사반영은 절대 안된다”며 거부했다.

지난 18일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 차장급 조합원 37명이 파업농성에 가담기로 결정한 배경도 노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국 사무실에 들어가 기사 입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무국·업무국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23일부터는 전무국·업무국 직원으로 편집국에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회사정문에서 막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회사가 외부에서 임시고용한 입력요원 2명의 출근을 막기도 했었다.

“최대한의 후퇴안”마저 거부하고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의 협상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파업의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발송부 조합원이 차량으로 ‘통신지’를 배달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파업행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는 회사 4층 편집